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⑤

佛無記持 心性本空
불무법지 심성본공
亦非淨諸法 無修無證
역비구정제법 무수무증
無因無果 佛不持戒
무인무과 불불지계
佛不修善 佛不造惡
불불수선 불불조악
佛不精進 佛不懈怠
불불정진 불불해태
佛足無作人 但有住著心見
불시무작인 단유주착심견
佛即不許也 佛不是佛
불즉불허야 불불시불
莫作佛解 若不見此義
막작불해약불견차의
一切處所 一切處所
일체시중일체처소
皆足不了本心
皆足不了本心
개시불로본심

작악무과 여자치인
佛無問無問地獄
타무간혹압지옥
永無出期 若果是人
영무출기 약시치인
不應如是見解
불응여시견해

견성도 못했으면서 항상 조작(造作)
함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죄인이
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는 무기공
(無記空: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에
빠진 것으로 갑갑함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한다.
만약 조작됨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
면 먼저 견성한 뒤에 모든 인연법을
쉬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
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본래 비었으므로 악한 짓을
해도 허물이 없다.' 하며 헛소리를 한
다면 이런 이는 무간지옥·혹압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견해를 내
지 않는다.

부처는 계를 따위를 범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심성(心性)이 본래 비었으
므로 더럽다거나 깨끗한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원인도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를 지닐 것도

부처는 계를 지닐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다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
고, 정진할 것도 없고, 계으로도 없다.
부처는 조작(造作)함이 없는 사람이므
로 만약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
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라 하면 이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
라는 견해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언제 어디에
서나 본심을 알 수 없다.

問曰 既若施爲運動 一切時中
문왈 기약시위운동 일체시중
皆是本心 色身無常之時
皆是本心 色身無常之時
개시본심 색신무상시지
云何不見本心
云何不本心
운하불견본심
언하불본심

答曰 本心常現前 汝自不見
답왈 본심상현전 여자불견
問曰 心既見在 何故不見
문왈 심기견재 하고불견
師云 汝曾作夢否
사운 여중작몽부
사운 여중작몽부
답왈 曾作夢
답왈 曾作夢

어떤 이가 물었다. "만일 모든 행위
와 시간이 모두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육신이 죽을 때엔 어찌
서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했다. "본심이 항상 눈 앞에 나
타나 있으나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
다."

물었다. "마음이 있어 볼 수 있다면
어찌서 보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물
었다. "그대는 꿈을 꾸고 있는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김원각(사인·역경위원)

若不見性 一切時中
악불견성 일체시중
擬作無作想 是大罪人
의작무작상 시대죄인
是癡人 落無記空中
시치인 낙무기공중
昏如醉人 不辨好惡
혼여취인 불변호오
若無修無作法 先須見性然後
약의무무작법 선수견성후
思緣慮 若不見性 得成佛道
식연려 악불견성 득성불도
無有是處 有人 撥無因果
무유시처 유인 발무인과
熾然作惡業 妄言本公
치연작악업 망언본공
作惡無過 如此之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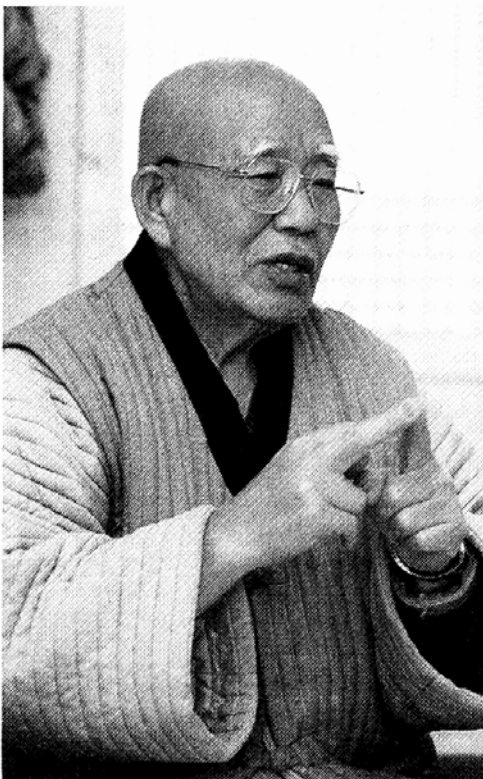
9년 큰 스님과의 대화

지옹스님
회암사 선덕

조계종 교육원이 본말사 주지스님 88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단의 가장 시급
한 과제로 응답자의 69.2%가 '승려의 자질향상과 수
행정신 회복'을 꼽았으며 94.7%가 '출가기준이 엄격
해야 한다'고 답했다. 승가의 대사회적 위상추진을
절감하며 승가의 자질향상과 승풍진작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2월 23일 조계종
교육원, 강원, 중앙승가대, 중회, 선방 등의 대표들은
'중단시대의 교훈과 승가의 과제' 좌담회에서 98년과 99년과 같은 중단
시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재교육을 통한 자
질향상을 으뜸과제로, 계율교육 등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19살에 출가한 뒤 말사 주지 한번 맡지 않고 일생
을 선방 수좌로 보낸 지옹(智翁)스님을 만나 출가수
행자의 자세와 승가의 위상확립, 그리고 수행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지옹스님은
1970년부터 1983년까지 13년동안 해남 대둔사 북암
앞에 토굴을 직접 짓고 손수 밥을 지어먹으며 혹독한
수행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혼자 지냈지만 대중
생활과 똑같이 죽비를 쳐 버티대를 펴고, 입선과 방선을 하는 등 철저하
게 고행을 했고, 최근까지도 선방에서 까마득한 후회들과 함께 안거에
드는 등 수행에 귀감을 보여준 선사다.

“계행 지키면 초심 그대로”



· 1925년 경복 출신 조
· 44년 금강산 마하연에
서 철해스님을 은사로
출가
· 47년 상월스님을 계사
로 비구계 수지
·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서 정진
· 1970~83년 대둔사
북암 토굴서 용명정진
· 현재 구례 회암사에
주석

스님께서는 1944년에 금강산 마하연
에서 출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로
출가 56년째인데 그 옛날 하고 요새 스
님들 하고 출가 목적이나 출가하는 마음
자세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시지요?
세월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도를 깨지겠
다'는 근본목적은 변함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스님들은 부모형제조차도 다
버리고 산중에 들 때의 마음이 요즘보다
는 확고부동하고 초발심을 견지하는 마
음도 보다 철저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속세를 버렸지만 중생을 부끄러워하고
도를 깨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이 강
했지요. 나도 출가한 지 56년이 넘었지만
한번도 집에 안 갔어요. 주지를 하고 가
탈불사를 하는 등 소임이 있었지만 수행
잡해서 본 자성을 보고 중생제도하는 근
본 목적을 잊으면 안됩니다. 양식 없으면
탁발해서 먹고 옷이 없으면 누더기를 주
워 입겠다는 굳건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요. 세상일에 연연할 것이 없어요. 일생
수도하다가 죽으면 내상에 또 하고 끊임
없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평생 지속시
켜야 합니다.

자나해와 같은 중단 분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중단사
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승가의 바람직한
진로와 승가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
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개
최되는 등 승가의 자질향상과 청정수행
공통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승풍진작을 통한 청정한
승가상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
야 되는지요?
▲첫째가 계행입니다. 계행이 없고는
불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본래 우리
마음 자성자리가 우주생기기에 전에 있어
요. 마음자리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져
있는 거지. 삼천대천 세계가 마음자리 바
깁고 있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요
요. 하늘에 해가 뜨면 나무도 꽃도 피고
습기도 마르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 본
자성자리속에서 전부 화현해 나오는 것
이지요. 우리가 세세생생 살생도 많이 하
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어쩌다가 마음을
잡 써가지고 금세에 부처님법을 만난 거
지. 이러한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 계율을
토대로 수도해야 수도가 제대로 되고 또
본자성을 찾을 수 있어요. 살생하지 말
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자체가 본
마음이기에 때문에 계행을 지키는 것이나
수도하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계행을 지
키는 것이 곧 수도요, 도를 닦는 것이 곧
계행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요새는 스님들도 선방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주지로 가고 싶어하고 포교·복
교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어쩌다가 마음을
잡 써가지고 금세에 부처님법을 만난 거
지. 이러한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 계율을
토대로 수도해야 수도가 제대로 되고 또
본자성을 찾을 수 있어요. 살생하지 말
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자체가 본
마음이기에 때문에 계행을 지키는 것이나
수도하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계행을 지
키는 것이 곧 수도요, 도를 닦는 것이 곧
계행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야생삼 인진숙 엑기스
자연민을 고집하는 구상복지원 임
형스님이 아리랑의 고향 강원도 정
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
생 참인진숙(蔞陳蒿)을 여러 차례
남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지역에서 원년상 지만 황기, 당귀,
자연산 복본자산삼기등 8종의 약
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림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
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목재 전용 방부·방충·방염·방수제
WOOD-SEAL (방부·방충·방염·방수)
효과
• 문화재, 사찰, 통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돌림 방지)
•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재품(단청)
•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명코팅을
하는 목재품(무광택)
응도
•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한
•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 빈 영구적인 방수(수증기 침투수 2~3m/m)
•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흰개미), 해충 침입방지
• 통기성(Breathing) 양호·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금해스님의 여 레 셴 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년의 선
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
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
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
종9표와 오랜 법제 기술을 거
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
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
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
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레션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
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
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
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천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형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천견
주 문 신 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35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